

# 코로나19 관련 업종 · 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

[항공·교통, 관광·공연, 수출, 해운 분야]

2020. 3. 18.

관계부처 합동

## 순 서

I . 추진배경 .....	1
II . 항공 · 교통 분야 .....	2
III . 관광 · 공연 분야 .....	5
IV . 수출 분야 .....	7
V . 해운 분야 .....	9
VI . 향후 계획 .....	11

## I. 추진배경

□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, 긴급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총 32조원 규모의 1~3단계 피해업종 총력지원 패키지 마련

○ 관광·항공·해운·외식 등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경제활력 보장에 주력

### < 1~3단계 총력지원 패키지 주요내용 >

① 1단계(4조 원) : 선제방역·특별방역 지원

+ 피해극복 지원 위해 업종·분야별 긴급지원대책 마련·추진

\* 방역대응 예비비(0.1조원),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공급(2조원),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(0.3조원), 매출채권 인수확대(0.2조원) 등

② 2단계(16조원) :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 + 경제활력 보강

→ 행정부 및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신속가동 대책 추가 마련

\* 5대 소비쿠폰 등 재정지원(2.8조원),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(1.7조원),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P-CBO 발행 등(2.5조원), 금융중개지원대출(5조원) 등

③ 3단계(11.7조원) :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역할 필요

→ 11.7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(메르스 추경(6.2조원)보다 확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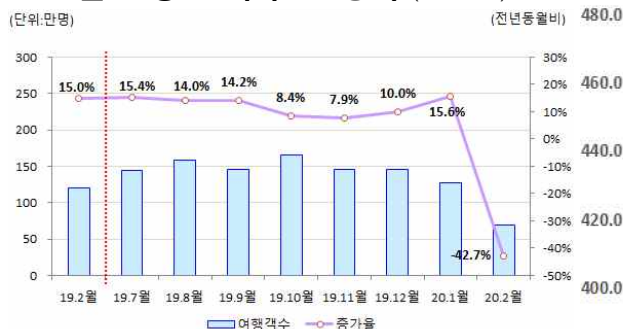
\* 방역체계 보강·고도화(2.3조원), 중소기업·소상공인 회복 지원(2.4조원), 민생·고용안정 지원(3.0조원)

□ 다만, 일부과제의 현장 지연\*과 특정업종의 피해누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, 추가 긴급지원을 통한 피해확산·장기화 차단 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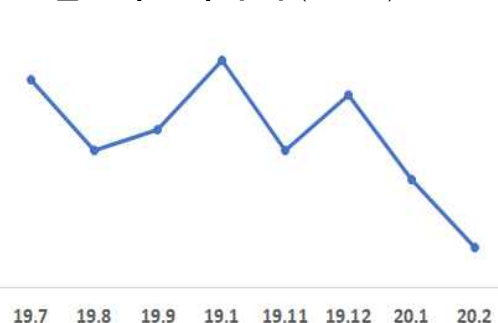
\* (예) LCC 3천억원 긴급대출 지원 발표(2.17일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) → 항공사는 항공기를 리스운영중으로 담보력·신용도 부족, 실제 대출실행에 난항

○ 특히, 국내외 여행수요·소비 감소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·교통·관광, 수출·해운·물류업계에 추가 지원 필요

### < 월별 방한 외국인관광객 (단위:만명) >



### < 월별 수출액 추이 (단위:억불) >



◇ 추가 긴급지원을 통해 피해업종 위기극복, 연관산업 정상화를 지원하고, 경제심리의 조기 반등 및 경제활동 정상화 유도

## II. 항공 · 교통 분야

### 1 업계 피해현황

- (항공) 해외 입국제한 조치(150개국, 3.18일)로 호주,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(셧다운) 확산 등 전체노선에 항공여객 급감\*

\* 직항개설 45개국 중 **21개국 셧다운(3.18)** / 3월2주차 항공여객 전년대비 **약 91.7% 감소**  
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: '19.3.16일 19만명 → '20.3.16일 **1.6만명 (91.6%감소)**

- '20.6월까지 최소 6조 3천억원\* 이상의 항공사 매출피해 예상, 상황지속시 항공사 도산 및 국제항공 네트워크\*\* 붕괴 우려

\* 3월2주차까지 여객감소 추이 기준('20.3~6월 ▽498만명), 한국항공협회 추정

\*\* LCC 4개사는 국제노선 운항 전면중단, 대한항공·아시아나도 미주·유럽까지 대거 중단 (대한항공 일일 국제선 운항편수) '19.3.16, 269편 → '20.3.12, 44편 (▽84%)

- (버스) 전년 동기(2월5주) 대비 고속버스 73%, 시외버스 70%, 시내버스 32%(서울·경기) 승객 감소로 매출 급감\*

\* 2월 고속 276억원(△46%), 시외 426억원(△43%), 시내(서울) 197억원(△22%) 매출액 감소

- 버스업계는 대부분 중소·중견기업으로 임금 지급에 애로를 겪는 중, 승객 감소 지속 시 경영 악화로 운행 중단 우려

### 2 그간 지원 사항

- (항공) 항공 · 해운업 긴급 지원방안(2.17, 경장), 확대무역전략 조정회의(2.20), 민생 · 경제종합대책(2.28)을 통해 항공업 지원 중

- (긴급융자 · 리스보증) LCC 운영자금 융자는 금융위·산은과 협의중, 항공기 도입시 리스 보증금 보증서 등 지원 계획(2.17 경장, 2.20, 무역회의)

- (운수권 · 슬롯) 대체노선 취항을 위한 파리 등 운수권 배분(2.27), 인천공항 슬롯(시간당 항공기 운항 용량) 증대(65→70회) 위한 증원협의

- (공항사용료·임대료) 24개 항공사가 사용료 납부유예 신청·시행, 소상공인·중소기업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·납부유예

\* (감면) 226개社 약 114억원, (납부유예) 39개社 약 121.5억원 (2.28, 민생대책)

- (입국제한 대응) 국토부내 긴급항공상황반을 설치(2.27), 인천공항 COVID-19프리 에어포트(3.5~), 미국 입국제한 선제적 대응 등

- (버스)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감염병 방지를 위해 버스·터미널 방역,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자체 방역 이행 중

\* '버스 18%(서울 26%, 경기 30.8%) , 철도(지하철 포함) 15.3%, 승용차 56% 등

- 승객 급감에 따른 일부 노선 탄력 운행, 지자체 버스재정 조기집행 등 정부 지원 노력에도 방역비 부담 가중 등 어려운 상황

- (공통) '특별고용지원업종\*'으로 지정된 항공사·전세버스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(항공 2/3~90%, 전세버스 90%) 등 지원(고용부)

\* 고용유지지원금 지원(휴업수당의 2/3~90%), 고용보험·산재보험 납부유예 등

⇒ 입국제한 확대(150개국), 대규모 운항중단 등 항공업계 피해 심화, 방역비 부담 가중 등 버스업계 어려움 고려한 추가 지원방안 필요

### 3 추가 지원방안

#### 1. 항공업계

- ① (운수권·슬롯) 해외 입국제한(150개국, 3.18일),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·슬롯 회수를 전면유예('21년에도 운수권·슬롯 유지)

- 포화·혼잡한 해외공항의 슬롯 유지를 위해 각국과 협의 진행

\*【운수권】(1차 지원) 중국노선 → (2차 지원) 전체노선('20년 1년간 유예)

\*【슬롯】(1차 지원) 중국노선 → (2차 지원) 쏘노선 '19년 동계슬롯('19.10~'20.3)

- ② (사용료) 항공사 대상 사용료 감면 확대 및 조업사 지원도 시행

- ① (착륙료)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시행하고, 감면폭도 20%까지 확대(인천공항 20%, 한국공항 10% / 3~4월, 약 114억원)

\* 추후 상황회복 시 수요회복에 따른 착륙료 증가분 감면 병행(약 35억 추정)

- ② (정류료=주기료) 운항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국공항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면제(3~5월, 약 79억원, 공항공사)
- ③ (항행안전시설 사용료) 국제선 항공기 착륙(약 23만원)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3개월 납부유예(약 120억원, 국고)
- ④ (지상조업사) 계류장사용료·구내영업료 무이자 납부유예(3~5월, 38.4억원), 계류장 사용료 20% 감면(3~5월, 감면 약 3.1억원)
- ⑤ (상업시설임대료) 운항중단 공항(국제 : 제주·대구·청주·무안 / 국내 : 사천·포항·원주·무안) 중소기업·소상공인은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면제(약 11억원)  
\* 그 밖에 상업시설(기내식·급유 등 포함)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 고려 3개월 납부유예(무이자)
- ⑥ (수수료)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 수수료(체크인 1인당 1,950원)를 전액면제(7개월, 약 1억원, 코레일)

③ (적극행정) 비운항 증가에 따라 전국공항 주기장 최대한 확보(489면\*),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·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로 대체

\* 인천공항 258면 중 240대(93%), 지방공항 231면 중 194대(84%) 사용중

○ 4월 이후 조기 운항재개를 위해 운항중단 국가에 협조요청

## 2. 버스업계

① (고속도로 통행료 감면) 노선버스(고속광역·시외·공항) 비용감축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(최소 1개월 이상, 위기경보 단계 심각→경계 전환시까지)

\* 월 80억원 지원(재정고속도로 58억원/월 + 민자고속도로 22억원/월), 민자고속도로 감면액은 국고 지원, 임시 국무회의(3.18일 예정)를 거쳐 실시

② (고속버스 탄력운영 등) 승객 50%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 추가 감회 검토(3월말)

※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해 최대 6개월(4월 → 10월) 시정기간 부여

③ (지자체 추경·교부세 버스 지원) 시내·시외·마을버스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하고, 교부세 버스 방역비 우선 사용 권고

### Ⅲ. 관광 · 공연 분야

#### 1 업계 피해현황

- (관광)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조치로 방한관광객·해외여행객 급감 → 관광업계 경영난 심화, 대량 실직 등 피해 심각
  - (시장) 3.14일 기준(누적) 방한관광객 약 201만명(△99만명, △33.0%), 국민 출국객 약 354만명(△285만 명, △44.6%)으로 대폭 감소
    - \* 외국인관광객 증가율(전년대비 %) : (1월) 15.3%, (2월) △43.7%, **(3.1~3.14) △93.2%**
    - \* 해외여행 증가율(전년대비 %) : (1월) △14.5%, (2월) △62.3%, **(3.1~3.14) △91.0%**
  - (업계) 여행·호텔업 휴·폐업 증가, 국제회의 등 연기·취소(128건)
    - \* 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(1.29~3.12, 고용부) : **1,941개사**(메르스 당시 297개사)
    - \* 평균 객실이용률(주요 7개 업체) : (1월1주) 70.7% → (3월1주) **5.6%(△65.1%p)**
    - \* 유원시설 입장객 수(상위 3개 업체) : (1월3주) 194,214명 → (3월1주) 55,355명(**△71.5%**)
- (공연) 예매감소\*에 따른 공연 취소·단축으로 업계 전반에 피해
  - \* (주간 예매건수) **1월4주 44만**→ 2월2주 31만→ 2월4주 27만 → **3월1주 10만**
  - 17개 시·도 문예회관 255개소 중 208개소가 휴관중(81.6%, 3.15일)

#### 2 그간 지원 사항

- (관광) 금융·세제 등 관광업계가 직면한 긴급 피해지원에 중점
  - (금융지원)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(500억원) 및 상환의무 유예(약 1,000억원), 일반융자 추가 지원(800억원) 등
  - (세제·기타) 국세·지방세(최대 9개월) 및 면세점 특허수수료(최대 1년) 납부기한 연장, 관광호텔 외국인 부가세 환급 연장('20末 → '22末)
- (공연) 피해 예술인 및 공연단체의 생활·경영애로 완화 추진
  -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확대\*, 창작준비금(1인 300만원) 지원 및 공연단체에 대한 대관료 지원 등(40억원, 800건)
    - \* (금리) 2.2→1.2% (한도) 5백만→1천만원 (상환기간) 1년거치 3년상환→2년거치 3년상환
  - ※ 여행업·관광숙박업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\* 지정(3.9일)
  - \* 고용유지지원금 확대(2/3~90%),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가능(고용부)

### 3 추가 지원방안

#### 1. 관광업계

- ☐ 관광업계 경영난 지속, 용자 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긴급 자금지원 규모 확대
  -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,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용자 규모 500억원 추가 확대(500억원 → 1,000억원)
    - \* 특별용자 신청현황(2.19일~3.13일) : 795건, 464.2억 원
  -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인력 증원 등 전달체계 개선\* 지속 추진
    - \* 보조인력 현장배치(50명), 자금배정 및 용자집행 주기 축소(주1회 → 주2회) 등 既추진
  - 관광기금 용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(최대 1년) 대상을 1천억원 확대하여 업계 부담경감 지원(1,000억원 → 2,000억원)
    - \*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현황(2.17일~3.13일) : 326건, 832.3억원
- ☐ 정부·지자체 등이 지분을 보유한 전시장·국제회의시설 중심으로 행사 취소시 자발적인 대관료 환불 분위기 확산

#### 2. 공연업계

- ☐ 공연 취소 및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 대해 공연 기획·제작 등 지원(200개소)
  - \* 1개소 당 최대 6천만원, 기획공연 제작경비·홍보비 등 지원
- ☐ 공연 제작 및 관람 계기를 창출하여 공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·수요자 비용경감 지원
  - (제작) 기초공연예술(연극·무용·음악·전통예술 등)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등 제작비 지원(160개 단체)
    - \* 공연규모 등에 따라 20~200백만원 차등지원
  - (관람)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(예매처별 1인당 8천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)을 통해 위축된 수요 회복(300만명)



## IV. 수출 분야

### 1 최근 수출 동향

□ (실적) 3월 수출(3.1~10)은 전년동기비 21.9% 증가한 133.4억불, 수입은 14.2% 증가한 133.0억불, 무역수지는 0.4억불 흑자

○ 최근 수출 증가는 조업일수(+1.5일) 영향으로,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△2.5% 감소

\* 조업일:('19)22.5, ('20)24.0, 진행일:('19)6.0, ('20)7.5, 잔여일:('19)16.5, ('20)16.5

< 최근 수출입 동향 >

(단위: 백만불, %)

구 분	2019년		2020년		
	3월	12월	1월	2월	3.1~10일
수 출	47,003(△8.4)	45,668(△5.3)	43,260(△6.3)	41,262(4.5)	13,339(21.9)
(일평균)	2,089(△4.3)	1,986(△7.3)	2,012(4.6)	1,834(△11.7)	1,779(△2.5)
수 입	41,992(△6.5)	43,687(△0.8)	42,725(△5.4)	37,147(1.4)	13,298(14.2)
무역수지	5,011	1,981	535	4,115	41

□ (전망) 2월 수출은 15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하였으나, 3월 이후 수출은 코로나19 확산·유가 급락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
○ (코로나19) 미국·유럽·중동 등 글로벌 확산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

○ (유가 하락) 글로벌 경기위축, OPEC+ 감산합의 실패로 유가 급락 → 석유제품·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 단가 하락

\* 국제유가(Dubai, \$/B) : ('19.3) 66.94 → ('20.3.6) 48.58 → (3.9) 32.87(△50.9%)

○ (반도체 수출) 서버向 메모리 수요 견조, D램 단가 회복세 등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경기 불안, 기저효과('19.3월 90억불로 연중 최고실적) 등에 따라 감소 예상

◆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수출 모멘텀 강화 집중

☞ 범정부 「코로나19 수출지원 대책(2.20 발표)」을 신속 이행하고, 코로나19 확산·유가 변동성 등 모니터링 및 추가지원 확대

## 2 그간 지원 사항

◇ 총리 주재 '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(2.20일)'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 대응 → 무역금융·마케팅 등 신속 이행

\* 「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대책」(2.20)

□ (유동성 보장) 무역금융 계획 260.3조원 중 36.9조원(14.2%) 지원

○ 마스크 소재 수입보험(수입자용) 특별지원, 非대면 무역보험·보증 서비스 개시, 전시업종 피해기업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

\* 마스크 소재인 부직포를 수입보험 지원대상 품목에 추가('20.2.27)

□ (수출기회 확보) 화상 상담회 지원 강화·온라인 전시관 신설 등을 통해, 해외출장 없이도 국내에서 수출기회 확보 강화

▶ 그간 242건, 국내·외 기업 321개社 지원 → 12건, 1,857백만불 규모 계약 체결

□ (신속통관·물류) 중국 수출입 물류정보\* 제공(2.23~), 항공운송 관세특례 시행(2.25), 해운기업 금융·비용절감 지원(3.2) 등

\* 중국 이동통제, 항만·항공통관 등 정보를 이메일로 약 10만명에게 매일 제공(2.23~)

□ (정보제공 등) 외투기업 대상 실시간 정보제공(2.28~), 분쟁 대응 매뉴얼 제작·배포, R&D 기술료 납부연장 등

▶ (AMCHAM-ECCK) "한국정부의 대응 조치를 긍정 평가하고 신뢰 표명"(3.5)

## 3 추가 지원방안

◇ 유동성 공급·非대면 마케팅 중심으로 수요 밀착형 지원 보장

□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,000억원 추가 지원(추경 500억원)

□ 코로나19 글로벌 확산,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상담·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 신속 추진

\* 수출성약지원, 전시상담회 참가지원, 기존거래선관리, 인허가 취득지원, 법인설립지원

## V. 해운 분야

### 1 업계 피해현황

- (여객 운송) 한·중항로의 여객운송은 1월 30일부터 중단되었으며, 한·일항로 여객운송\*도 3월 9일부터 중단
  - \* 한일항로의 경우 여객운송이 중단되기 전인 1~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76.3% 감소('19.1~2월, 251천명 → '20.1~2월, 60천명 / △191천명)
- 아울러, 연안 여객운송의 경우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(1.1~3.11) 대비 23.7% 감소('19, 2,024천명 → '20, 1,544천명 / △480천명)
- (화물 운송) 올해 전국 무역항의 1~2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.1% 감소
  - 특히, 對 중국 물동량\*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.2% 감소
    - \* 1~2월 물동량 : ('19년) 1,359,624TEU → ('20년) 1,316,444TEU

### 2 그간 지원 사항

- (지원 대책) 두 차례(2.17, 3.2)에 걸쳐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 발표, 최대 총 3,750억원의 재정, 금융 등 지원방안을 마련
  - (재정 지원) 선사 및 하역사가 항만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항만 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감면
    - 또한, 각종 정부 보조금 약 235억원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,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  - (금융 지원) 단기적 유동성 악화에 직면한 선사 등에 해양진흥공사와 해운조합에서 긴급경영자금 총 1,800억원 지원
    - \* 공공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, 은행은 이를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며, 공공기관은 예치자금의 이자를 받지 않고, 이를 대출 이자 감면에 활용
  - (제도 개선) 중국 내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에 따라 선박 검사기간(3개월) 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\*(감염 경보 종료 후 3개월) 연장
    - \* 탈황장치 등 친환경설비 설치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 선박

- (추진 현황) 모든 대책을 정상 추진중이며, 3월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 예정
-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소급하여 시행중 (‘20.1~)이며, 2월 납부액까지 총 3,347백만원 감면
  - \* 한.중 여객 860백만원 / 한.일 여객 73.4백만원 / 항만운영 2,413백만원
  - 각종 정부 보조금의 경우 자금 배정을 완료하였으며, 대부분 자금을 3월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예정
-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(휴직수당의 90% 지원, 180일)으로 지정(고용부, 3.16)
  - 모든 해상여객운송업체(외항 24, 내항 58)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2,085명(외항 645, 내항 1,440)이 포함됨에 따라 안내 공문 시행(3.10)
- 해운조합(총 300억원 지원)의 경우 협약은행 측에 36개사, 269억원을 1차 심사대상으로 통보(3.10)하였으며, 추가 접수 중
  - 해양진흥공사(총 1,500억원 지원)의 경우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(기업은행 · 수협은행, 3.13)하였으며, 3.16일부터 신청 접수중
- 선박 검사기간 연장(2.5~) 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 연장(3.2~)

### 3 추가 지원방안

- 일본의 해상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(3.9)에 따른 여객운송 중단으로 피해가 확대된 한·일 여객선사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지원
-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
  - 항만시설사용료·임대료 감면 : 한·일 카페리사 / 감면을 10% 확대
    - \* 감면을 확대 기간 : 3.9 ~ 경보 해제시 / 월 약 46백만원 감면(추가 감면 11.5백만원)
  - 임대료 감면 : 상업활동 입점업체(면세점, 편의점 등) / 최대 100% 감면
    - \* 3.9일부터 소급 적용 / 총 17개사, 월 약 433백만원 감면(추가 감면 260백만원)
-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, 긴급경영자금\* 지원
  - \* 대상 : 국적 한·일 여객전용선사(3개사), 카페리사(2개사) / 규모 : 1사당 최대 20억원(한·중 카페리사 지원액(총 300억원) 중 잔여액 활용) / 금리 : 2% 내외 / 만기 : 1년

## Ⅵ. 향후 계획

- ‘위기관리대책회의’ 등을 통해 既 발표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애로발생시 신속 해결 추진
  - 특히, 추진중인 정책과제와 추경편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통해 신속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추진
- 향후, 분야·업종의 추가피해, 회복 정도와 대내외적 여건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피해극복 지원방안 강구